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국해방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마자르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시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또한 전 소련국방상, 로씨야 이고르 모이세예브명칭 국립 아카데미야민속무용단 지배인,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지 및 편대성 동유럽센터 위원장,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를 비롯하여 로씨야, 네덜, 말레이시아, 인디아, 일본, 에멘, 벨라루시,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폴스카,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칠레, 페루, 에파드르의 정계, 사회적,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소지,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국해방 65돐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항일대정승 승리에로 이끄는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행도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넋을 꽃피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고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장장 65성장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찾기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당창건 6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엄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엄격히 되새겨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전위조직인 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건설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활동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이끄는 혁명적당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출발점으로, 철칙으로 삼아야 근로인민대중의 명도적정지조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해 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사업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언제인가 일꾼들이 어느 한 도소재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상류에 기업소를 건설할것을 예견한적이 있었다. 그곳은 기업소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좋은 위치였다. 강을 끼고있어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수송조건이 좋았으며 원료를 대주는 기업소도 멀지 않아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았다. 일꾼들이 한가지 우려한것은 그 강이 주민들과 가까운데 있다는 문제였다. 하지만 오수정화대책만 잘 세우면 그것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타산한 일꾼들은 기업소건설과 관련한 자료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강은 인민들의 먹는물을 보장하는 강인데 아무리 대책을 잘 세운다고 해도 마을을 홍수시킬 수 없다고 하시며 기업소부지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도록 하시었다. 며칠후 기업소부지를 새로 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해하시면서 공장부지를 정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그것이 인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를 심중히 고려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리익이 나는 일이라고 해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혁명당을 얻는다 해도 조국사의 한줄기의 강도 흐리게 할수 없으며 더우기 인민들의 생활에 타격만 한 영향도 미치지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되어 기업소부지가 다시 옮겨지게 되었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실리를 먼저 따지기 전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찾기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하나의 창조물, 하나의 제물을 보시고 이기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것부터 먼저 물으시고 그것을 쓰고 살게 될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를 먼저 헤아려보신다.

지금으로부터 몇몇년 바래세한 삼수발전소건설을 위하여 내세우려고 했던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헤아리시며 발전소엔제공사부터 다그치기 전에 인민들의 살림집부터 먼저 짓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승연한 모습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내세우려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모든 사업을 견디고 해나가기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최고라고 이끌어주시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일꾼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는 인민의 참다운 총부여 되어야 한다고 늘 이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제 79(1990)년 1월의 뜻깊은 그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일꾼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복부자로 살며 일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도 인민대중에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 일꾼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배워며 군중과 교락을 같이하는것을 숭상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꾼이 아니라 참다운 주체형의 일꾼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일꾼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한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귀중한 가르치심에는 당의 품속에서 혁명의 지휘봉으로 자라난 우리 일꾼들이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우리 일꾼들이 지나야 할 인민적정신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면서서는 병설과 위시장부터 돌아보시며 병사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병장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로동자들의 합숙과 농민들의 살림집에 들리시어 친어머니정을 부여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인민위원의 송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 뵙지않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인민적정신은 오늘 우리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정신을 지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하는 송고한 귀감이 되고있다.

몇몇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은 다음 우리 일꾼들의 일

한 없이 고결한 품모

한평생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인민적정신을 전하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높고 높이에서 체현하시어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어느해 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 냉면국의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겨울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른새벽부터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퍼그나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점심시간을 잊으신듯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

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곳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는가 등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었다.

한두시간도 아니고 반나절이나 그것도 추운 겨울의 날씨에 찬바람을 맞으며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러보는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한 일꾼이 아버지수령님께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농가에 들어가 몸도 녹이고 식사도 하실것을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날씨가 춥다와 가까이 있는 농장원의 집에 들어가 점심식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케를 끼칠수 있다고, 점심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온것이 있으면 밖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라고 말씀하시었다.

아침에 준비해가지고 온 식사야 풍광 얼어든 음식뿐이었다.

일꾼들은 격경이 북받쳐올라 선뜻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는 일꾼들을 정다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시간이 연장할것만 볼을 피워 물이나 덥혀가지고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여야 하겠다고 단정히 이르시었다.

그러시고는 몸소 주변에 널려있는 작정어들을 모으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이 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찬바람부는 밤에서 일꾼들과 함께 겸소한 식사를 하시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장그리 바치시고 자신을 위한 일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수령님, 인민을 위한 우리 수령님의 헌신적인 날과 날들은 이렇게 흘렀다.

정령 우리 수령님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자신의 제일가는 락으로 여기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던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강 철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5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통만생 아련안보위성 대표단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보경 인민보안부 부부장장 짜린 와린타라썩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단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쯤말리 씨이 산동지들이 보내어온 인사를 전해주실것을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방문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철신으로 이어진 사랑의 자욱

몹소 취해주신 긴급대책

주제 67(1978)년 3월 어느날이었다. 유럽의 한 나라에 있는 우리 대표부에서 조국에 다음과 같은 긴급정보문을 보내어왔다.

《...부상당한 환자 대수술 진행함. 병세는 차도가 없고 혼수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의사들은 더 수술할수 없다고 함.》

환자는 대표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었다.

해당 부문 일꾼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집을 떠난 아들이 저지에서 위급하게 앓고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는 그런 어머니를 봤는가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동무들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비행기도 띄우려고 의사들도 동원하고 약품들도 보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곧 긴급대책이 세워졌다. 귀한 약품을 실은 비행기가 그 나라를 향하여 리를 띄웠고 환자는 다시금 큰 병원에서 옮겨가 2차수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병세는 호전되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자에 대한 세번째 수술을 하도록 다시금 대표부에 긴급정보를 보내도록 하고 수술은 조국에서 직접 지휘하되 판목있는 의사들이 그곳에 있는 의사들과 공동으로 수술을 진행할때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환자는 세번째 수술을 받고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 썩 살려내야 한다고, 비행기도 띄우려고 의사들도 동원하고 약품들도 보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환자에 대한 세번째 수술을 하도록 다시금 대표부에 긴급정보를 보내도록 하고 수술은 조국에서 직접 지휘하되 판목있는 의사들이 그곳에 있는 의사들과 공동으로 수술을 진행할때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환자는 세번째 수술을 받고 마침내 의식을 회복하 썩 살려내야 한다고, 비행기도 띄우려고 의사들도 동원하고 약품들도 보내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숨ות본품들을 일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변에 옷혜하여 솜옷본품들을 입고는 동행하시어 하시는데가 되었고.

순간 일꾼들의 마음은 굳어졌었다. 사실 자기들로서는 솜옷을 여러가지 형태로 만드느라고 어지간히 머리를 썼고 옷전문가들의 품평회도 여러번 진행하였지만 동행들과는 의논해보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 일하게 할수는 없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 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혁명전진장을 개조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러하여 혁명전진장을 개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자들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당황되게 벌어졌다.

도처에서 원철로식로들을 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느 한 낱은 제련소의 10개 소결로도 하늘로 질소아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성국

솜옷을 잘 만들자면 입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솜옷본품을 입고는 동행하시어 하시는데가 되었고.

순간 일꾼들의 마음은 굳어졌었다. 사실 자기들로서는 솜옷을 여러가지 형태로 만드느라고 어지간히 머리를 썼고 옷전문가들의 품평회도 여러번 진행하였지만 동행들과는 의논해보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 일하게 할수는 없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 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혁명전진장을 개조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러하여 혁명전진장을 개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자들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당황되게 벌어졌다.

도처에서 원철로식로들을 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느 한 낱은 제련소의 10개 소결로도 하늘로 질소아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성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파메탈라시

파메탈라공화국 대통령 알바로 풀를 각하

나는 파메탈라독립 18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2010)년 9월 15일 평양

니카라과공화국 대통령 다니엘 오르페가 사베드라 각하

나는 니카라과독립 18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2010)년 9월 15일 평양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안겨줄 솜옷을 만들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솜옷본품을 보여주시며 전시장에 나오시었다.

전시장에는 여러가지 색깔에 다양한 형식으로 만든 남녀솜옷

본품들이 진열되어있었다. 해당 부문 일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안내드리면서 그이께서 만족하시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것처럼 뻤시있는 솜옷들을 만들어본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서시어

본품들을 일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대변에 옷혜하여 솜옷본품을 입고는 동행하시어 하시는데가 되었고.

순간 일꾼들의 마음은 굳어졌었다. 사실 자기들로서는 솜옷을 여러가지 형태로 만드느라고 어지간히 머리를 썼고 옷전문가들의 품평회도 여러번 진행하였지만 동행들과는 의논해보지 못했기때문이었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 일하게 할수는 없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한 일, 로동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 고는 만사를 제쳐놓고 혁명전진장을 개조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그러하여 혁명전진장을 개조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자들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당황되게 벌어졌다.

도처에서 원철로식로들을 전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느 한 낱은 제련소의 10개 소결로도 하늘로 질소아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성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에 수여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회장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에 수여하는 의식이 15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박관광 조일우친선협회 회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의식에 참가하였다.

제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양행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평이 전권대사로써 조일우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이 수여되었다.



선덕파수농장 당조직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행도의 위대성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모임, 연구 발표모임 등을 현실과 결부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도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보학습을 생활화, 습성화 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현장에 나간 한 일꾼은 작업의 설참을 리용하여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 활동소식을 독보하면서 천 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새로

지금 선덕파수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보학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행도의 나날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다가오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원들 영웅적작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동동원원 최창도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필승의 신념과 리진사자를

대고조의 불길속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는 대화학공업기지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의 일 군 들 과 로 동 계 급

은 나라 대고조를 안아온 주체의 대화학공업기지 2. 8비 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도대가를 따라 더욱 훌륭히 다져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제를 추켜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면 수령님의 편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8월초 이곳을 찾으시어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질 좋은 비날론을 격정적으로 보시고 보시면서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실제로 비날론을 볼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또다시 통장훈을 부른 기업소로동계급의 수고를 거듭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어바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워 10여년만에 비날론생산의 동음을 다시 울린 그때로부터 반년 남짓한 기간에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끼없이 바쳐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얼마전 주체비날론이 팽방 쏟아지는 이곳을 또다시 찾은 우리는 그 모든 전변을 안아온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결사투쟁의 투쟁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있다고 한다. 또한 고열한은 물론 발열량이 비교적 높은 저열탄까지도 다 연료로 쓸수 있다. 그러므로 연료조건에 거의 관계없이 연소효율이 높은것이 특징이다.

순환비등총보이라는 그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넓은 범위에서 부하조절을 안정하게 할수 있다는것이 중요한 우점이다. 석탄분급과 수조절 등 보이다운영의 전과정을 자동조절할수 있도록 증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것 등 좋은 점은 이점이 아니었다.

들으면 들수록 경제적으로 생산 측면에서나 로동조건보장에 서나 종전의 보이라에 비길데 없이 우월한 순환비등총보이라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연구사들을 만나보면 그 우월성에 앞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 일제세워도 최상의것을 목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사소한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일본새, 투쟁기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난해 개인적인 비날론생산공정의 개진공사를 내밀면서 기업소일군들속에서 주되는 논의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바로 증기장치의 보이라

문제였다.

대부분의 일군들이 안전하리 증기의 보이라를 개진하여 비날론생산부터 보장하고 새 기술도입은 그후에 가서 보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소책임일군들도 합성과 종합, 수직방사공정의 개진 등 아름찬 전투가 벌어지는데 너무 일을 벌려놓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보이라운영의 주인들인 증기장차 로동자들부터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안은 책임일군들이 현장의 기대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외였다. 몇년전부터 비등총보이라를 운영하면서 새 기술의 우월성을 실생활로 체험한 그들은 그보다 더 우월한 순환비등총보이라를 받아들이는것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던것이다.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책임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순환비등총보이라를 도입하여 비날론생산을 보장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바로 그 길만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화된 비날론공정을 일떠세우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녔기에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비록 초경험에 나섰지만 배심이는

당의 높은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오직 성공만을 확신하는 비날론로동계급은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새로 일떠세운 순환비등총보이라에 불을 지펴 기본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생산에 들어가는 환회로 온 성공의 순간을 안아오고야 말았다.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어바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는 길에서 하나를 일떠세워도 최상의 수준에서 그 어디 내놓아도 몇몇한 창조물만을 내놓는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적 영감을 마음속 깊이 새겨안고 낫과 밭이 따로없는 공격전을 벌려왔다.

«건설사공정을 번듯하게 꾸려 생산의 동음을 울려야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비날론의 힘을 볼수 있다. 방직공업부문의 원료로 쓸수 있게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가공하는 바로 이 공정은 비날론로동계급이 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놓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올해 2월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이 공사에 달려

붙은것은 3월 중순이었다.

당장 급한것은 생산건물문제였다. 기업소책임일군들은 수직방사지장설의 한 건물용 건설사공정건물로 개진할 결심을 내리었다. 지체없이 구체적인 전투계획이 작성되고 직장, 단위별로 조직된 돌격대원들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건물벽체 붕괴, 내부 및 외부지방 등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건설의 나날 대중의 정신력을 활활 산처럼 분출시키는 화산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온 나라의 대고조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연단에 서게 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안고 낫과 밭이 따로없는 공격전을 벌려왔다.

«건설사공정을 번듯하게 꾸려 생산의 동음을 울려야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비날론의 힘을 볼수 있다. 방직공업부문의 원료로 쓸수 있게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가공하는 바로 이 공정은 비날론로동계급이 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놓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올해 2월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이 공사에 달려

붙은것은 3월 중순이었다.

당장 급한것은 생산건물문제였다. 기업소책임일군들은 수직방사지장설의 한 건물용 건설사공정건물로 개진할 결심을 내리었다. 지체없이 구체적인 전투계획이 작성되고 직장, 단위별로 조직된 돌격대원들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건물벽체 붕괴, 내부 및 외부지방 등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건설의 나날 대중의 정신력을 활활 산처럼 분출시키는 화산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가 온 나라의 대고조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연단에 서게 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안고 낫과 밭이 따로없는 공격전을 벌려왔다.

«건설사공정을 번듯하게 꾸려 생산의 동음을 울려야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비날론의 힘을 볼수 있다. 방직공업부문의 원료로 쓸수 있게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가공하는 바로 이 공정은 비날론로동계급이 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놓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올해 2월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이 공사에 달려

한가지 일을 해도 몇몇이 자랑할수 있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 현지지도과정에 기업소에 새로 일떠세운 순환비등총보이라의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아주 흥미가 있다고 하시며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 연판단위 과학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알레드스쟁성으로부터 비날론생산의 전공정에 철저히 필요한 증기를 위한 생산보장하는 이 순환비등총보이라는 공업적단에서 실현되어 정상운영되는 매우 우월한 열설비이다.

우리는 기사장 한동삼동무와

함께 증기장차현장을 돌아보면

서 이곳 기대공들과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로부터 순환비등총보이라의 우점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순환비등총보이라는 이름 그대로 보이라의 밑부분에서부터 석탄을 비등시켜 연소시키는 한편 연도도 나가는 체라지 않은 미세한 석탄알갱이들을 다시 연소실로 순환시켜 말끔히 태우는 보이라이다. 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판방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크기이면 그대로 이 보이라에서 리용할수

그러나 현장에서 일군들과

로동자, 연구사들을 만나보면 그 우월성에 앞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하나 일제세워도 최상의것을 목표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사소한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일본새, 투쟁기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난해 개인적인 비날론생산공정의 개진공사를 내밀면서 기업소일군들속에서 주되는 논의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바로 증기장치의 보이라

문제였다.

대부분의 일군들이 안전하리 증기의 보이라를 개진하여 비날론생산부터 보장하고 새 기술도입은 그후에 가서 보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소책임일군들도 합성과 종합, 수직방사공정의 개진 등 아름찬 전투가 벌어지는데 너무 일을 벌려놓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보이라운영의 주인들인 증기장차 로동자들부터 만나보자. 이런 생각을 안은 책임일군들이 현장의 기대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외였다. 몇년전부터 비등총보이라를 운영하면서 새 기술의 우월성을 실생활로 체험한 그들은 그보다 더 우월한 순환비등총보이라를 받아들이는것을 적극 지지하여 나섰던것이다.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은 책임일군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순환비등총보이라를 도입하여 비날론생산을 보장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웠다. 바로 그 길만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화된 비날론공정을 일떠세우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녔기에 기업소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비록 초경험에 나섰지만 배심이는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도록

비날론도시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방직공장을 방북케 하는 건철사공정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승강장치를 따라 뿔뿔이 오르는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건설하고 로동자들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승강장치를 따라 뿔뿔이 오르는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건설하고 로동자들이 새로 꾸려져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불허 그러저는것만 같은 환희가

파도쳐온다.

선군시대 비날론도시의 전변의 새 모습을 안아온 건철사공정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방직공업부문의 원료로 쓸수 있게 비날론비등총보이를 가공하는 바로 이 공정은 비날론로동계급이 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놓은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올해 2월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우리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이 공사에 달려

배천 영예군인식료공장

에서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들의 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 콩유유생산설비를 기술개선에 힘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콩유유생산설비를 자체로 기술개진하자니 힘겨웠다. 공장에서 그런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의 그날처럼 맡겨진 혁명업무수행에 언제나 성실해온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사장 한동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힘과 지혜를 합쳐 끝내

기술관철 경제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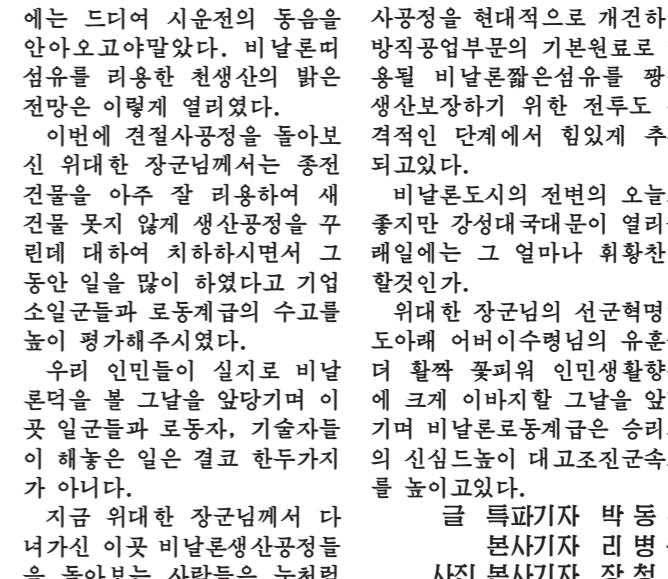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들의 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 콩유유생산설비를 기술개선에 힘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콩유유생산설비를 자체로 기술개진하자니 힘겨웠다. 공장에서 그런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의 그날처럼 맡겨진 혁명업무수행에 언제나 성실해온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사장 한동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힘과 지혜를 합쳐 끝내



만년대계의 창조물에 새겨지는 위훈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강원도청년들격대원들과 녀맹원들의 투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전투적소속따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우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로 하여 지금 온 나라를 활화산의 용암처럼 끓여버리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위대한 세기변혁이 바야흐로 래동하는 격동적인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로 훌륭히 일떠서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은 지금 낫과 밭이 따로없는 공격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발전소건설을 맡은 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면서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 7월 산세험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낼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날에 남다라 솟아오르는 언제와 작업기의 동음높은 물결결진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과 발전소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는 녀맹원들의 투쟁일단을 아래에 전한다.

공 사 장 의 1 번 수 들

언제건설장에 가보면 사람들 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전투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언제건설장의 1번수들 불려오는 강원도청년돌격대원들이다.

지난 6월 어느날이었다. 언제건설장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무덤이언제기초굴착공사물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였다. 언제건설과 함께 무덤이언제공사물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세운 목표를 세우고 계획수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어지간히 속이 달아올랐다.

«이때였다. «우리가 맡았습니다.» 라고 기운차게 말하며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청년돌격대일군인 김원준동무였다. 착공의

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러나 수백m구간에서 공은 암반을 뚫는 기일에 치러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업설비를 들이밀수 없는 곳에서는 함마와 정체를 가지고 전투를 벌려야만 하였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한결 용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어떻게 하면 공사기일을 제대로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장을 가까이하면 현장지휘부일군들은 한결 용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어떻게 하면 공사기일을 제대로 보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장을 가까이하면 현장지휘부일군들은 한결 용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제날의 남강

투쟁과 혁신으로 낫과 밭을 이어가는 발전소건설장은 조신년성의 솟기와 기계를 남김없이 펼쳐져 발전소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해준 도안의 녀맹원들의 자랑찬 위훈도 드러나고있다.

지난해 8월 발전소건설장은 시급히 수십만㎡의 흙을 옮겨야 할 아름찬 과제가 나섰었다. 언제쌓기야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던 그때 제일 걸린것이 흙이었다. 바로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스스로 맡아나선 사람들이 바로 도안의 녀맹원들이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녀성들도 한몫 담당하여 내려놓는 자각이 그들이 발휘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그들이 수십일동안에 발휘한 영웅적 투쟁기록을 전하는 전투기록의 일부만을 소개한다.

«수십만㎡의 성토과제, 결코 간단한 작업과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녀맹들격대원들은 당일에 다진 명세를 무조건 제 기일에 수행하고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 언제우에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기쁨드림 그날을 그리며 한결같이 떨쳐나갔다. 원산시,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고성군대대에서 첫번째 벌써 공사총량의 15.5% 돌파!»

마을녀성들처럼

《날이 갈수록 우리앞에는 난관과 시련이 겹겹이 막아나갔다. 원산시, 문천시, 고성군, 김화군대대가 맡은 구간에 공은 암반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퇴각이 내리조이지만 그늘을 찾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운반하던 전하의 남강마을녀성들처럼 우리는 더욱 여색투쟁할것이다.

《비는 좀처럼 멎지 않고 내렸다. 작업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자동차들이 지치면서 상처대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것이 문제였다. 이때 누군가가 비옷을 벗어 자동차위에 퍼놓았다. 상사에 온 작업장이 비옷들이 펼쳐졌다. 언대우같은 운전자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전투기록장도 녀맹원들의 투쟁에 대하여 다는 전하지 못할것이다.

도안의 녀맹원들이 수십일간의 완강한 투쟁을 벌려 수십만㎡에 달하는 흙을 옮겨 언제쌓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과 지원자들과 녀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의하여 원산군민발전소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서고있는 것이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식료품의 질을 높일수 있게

배천 영예군인식료공장

에서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들의 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 콩유유생산설비를 기술개선에 힘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콩유유생산설비를 자체로 기술개진하자니 힘겨웠다. 공장에서 그런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의 그날처럼 맡겨진 혁명업무수행에 언제나 성실해온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사장 한동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힘과 지혜를 합쳐 끝내

배 천

영예군인식료공장

에서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들의 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 콩유유생산설비를 기술개선에 힘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콩유유생산설비를 자체로 기술개진하자니 힘겨웠다. 공장에서 그런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의 그날처럼 맡겨진 혁명업무수행에 언제나 성실해온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사장 한동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힘과 지혜를 합쳐 끝내

영예군인식료공장

에서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들의 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식료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공장에서 콩유유생산설비를 기술개선에 힘쓰기 위한 전투를 벌리던 때였다.

콩유유생산설비를 자체로 기술개진하자니 힘겨웠다. 공장에서 그런 설비를 만들어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의 그날처럼 맡겨진 혁명업무수행에 언제나 성실해온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기사장 한동삼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집단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힘과 지혜를 합쳐 끝내

집 체 적 힘 과 지 혜 로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은 파 군 강 안 협 동 농 장 3 대 혁 명 소 조 원 들

진행하고있는중이었다. 시간이 가고 날이 흘렀지만 씨앗들은 싹틔우며 자라지 않고있었다.

하여 이 밤도 안락하운 마음을 달래며 사색을 깊이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밤의 정적을 깨치며 그의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오고 있었다.

그의 고성을 알고 달려온 안

당을 따라 청춘들이 앞으로

작사 김형찬
작곡 황진영

아주 랑만적으로 (J=126)

1. 세 찬바다 길 들어 새 땅을 펼친
그 기적-엔-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후렴) 창 조와-위훈이 없 이야 값 높은-시절을 말 하라 로동
당 -부름에 피 끓는 청춘들 아 앞으로
조 국의-큰짐을 다 말자 최 첨단-패권도 다 쥐자 애국
에 -불타는 청춘들 아 당을 따 라 앞 으-로

2. 만리대공 우주에 위성을 올린
그 자랑엔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후렴)
3. 강성대국 승리의 돌파구 여는
그 앞장엔 청춘들 우리가 있다네 (후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4일 리파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었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비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 쾰른시위원회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는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사회민주당 쾰른시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이날에는 관계부서 일꾼들이 참석하였다. 최동지는 단장은 조선방문기간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현실이 서방의 선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두 나라, 두 당사자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는 15일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이날에는 지승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김동지는 지난 기간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집전을 받은 영광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며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주체사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제8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 진행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제8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13일부터 15일까지 룡라도의 씨름경기장에서 있었다.

평양시와 각 도에서 선발된 10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는 비호씨름과 몸무게급별씨름으로 나뉘어 순차전과 편명전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보람찬 생활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씨름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려 인민의 슬기롭고 역센 기상을 보여주며 완강한 투지와 체질을 수반으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는 선수들의 투쟁한 경기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환성을 올리는 관중들로 하여 경기장은 편일 흥성이었다.

20여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겨룬 비호씨름에서는 평안북도의 리조원선수가 1등을 차지하였다.

몸무게급별씨름경기에서는 평안북도가 단계종합 1등, 평양시가 2등, 함경남도가 3등을 하였다.

폐막식에서는 리조원선수에 게 1에 달하는 대항소상과 금수장을, 상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들과 선수들이 상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제8차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씨름의 기술을 현재와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풀이되며는 온 나라에 혁명적 열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말리수상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모디보 씨디베 말리공화국은 세인의 추억속에 영생하시 수상이 3일 리경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석상에서 수상은 김일성주석의 신군정지침에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암살책동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금융,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잡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은 세차게 타르고있는 오늘 각지 근로자들과 청년동맹원들속에서는 어머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뜨겁게 불태우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리의학부 고교사과학과 강사 연구사 한세관동무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며 만민을 이끌고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원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인민들의 기쁨속에 비낀 봉사자의 모습

개천철도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즐거움 열차여행을 더욱 흥겹게 하는것은 따끈한 과자이며 지방 특산물들을 살뜰히 권하는 열차판매원들의 모습이 아닌가싶다.

얼마전 우리가 탄 열차가 개천역을 지난 때에도 차칸에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 시원한 약수며 새빨간 통김치, 얼음이 동동 뜬 국수를 비롯하여 개천철도상업관리소의 열차판매원들이 봉사하는 음식들은 여행자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주었다.

그러지 않아도 국수생각이 났었는데 마침이러면서 서둘러 저가락을 잡는 농장원아바이며 컵물과일을 앞에 놓고 좋아라 손뼉을 치는 아이들, 민족음식이 제일이라며 녹두지뽕과 송편그릇을 당겨놓는 내인들...

만포로 출장간다는 한 손님은 갖가지 반찬을 곁들인 과자를 맛있게 드시라고 열차판매원을 찾았다.

어찌만 음식들이 이렇게 구미에 꼭 맞았고, 제 집이신들 이렇게 맛있게 들었는데 하는 그의 말에 모두가 목소리를 합쳐주었다.

《정말 우리 열차판매원들이 제일입니다.》

잠시후 우리는 열차판매원들과 마주앉았다. 박은하, 리향란동무를 비롯한 열차판매원지니들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얼얼부러 불히더니 이어 자기들이 우리 열차판매원으로 불리우게 된 사연을 펼쳐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해나가기로 하여야 하겠습니까.》

열차판매원들의 이야기는 박화숙동무가 개천철도상업관리소 지배인으로 임명받은 7년전 어느 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지배인은 판리소열차판매원지니들과 첫 침승길에 나섰다. 높아가는 열차의 동풍과 더불어 그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박화숙동무는 1980년대에 열차판매원으로서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떼었다. 그는 자기 직업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많은 여행자들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열차봉사사업,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보람찬 일이기 에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여행하는 손님들에게 봉사할 상품지니들을 하나하나 적어주시면서 열차상업을 발전시킬 방향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였으며 인민의 사랑을 받는 열차판매원의 생활을 반영한 예술영화까지 만들어주어 주신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는 금방 열차판매원을 시작한 단발머리지니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우리도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충실히 일해나갔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드높았다. 그것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져 열차판매원지니들은 하루일이 끝나면 자기들의 봉사에 대한 여행자들의 의견과 상품들에 대한 수요를 판매원수첩에 토박토박 적어넣었다.

그러던 어느날 박화숙동무는 종업원들앞에 한창의 설계를 펼쳐놓았다.

《지금 있는 단종진들을 없애고 2층, 3층짜리로 여러동 새로 건설하자요. 거기에 넉넉한 주방도 만들고 청량음료냉장고까지도 꾸러 음료들과 에스키모같은것도 자체로 만들어보지요. 축산까지도 저금보다 한 세배정도 되게 확장하는 것이 어때요?...》

전망목표앞에서 종업원들은 입을 딱 벌렸다. 그러나 지배인은 계속 엮어내려가는것이 아닌가.

부담발도 여러 정보 조성하여 필요한 원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며 매일 아침 건지산생물과 운송약수를 길다라 봉사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상업관리소의 교정봉사로 되게 하자는 등...

열차상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아들이려는 그의 불같은 열정은 종업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제분부, 장영회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한마음뜻이 되어 열차나갔다.

개천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간석의 갈매리를 뿔아고 등짐으로 진거를 저달라 기를진 눈발으로 만들까까지 몇백백이 지나야 하였으며 판리소의 녀성종업원들이 여러동의 건물들과 생생한 지, 축산과 남새농사를 건설하는 과정에 고급미장공으로, 건설박사로 되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날과 달이 흘러야 하였던가.

그날이 이룩된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것은 자기들의 꿈과 열정이 솟아나고기린 창조물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여행자들의 모습이였다.

아름다운 리상은 불같은 노력을 낳았다.

이들이 그러던 꿈은 오늘 현실로 펼쳐졌다.

현대적으로 꾸려진 주방에서는 갖가지 요리들이 나오고 그뿐한것은 청량음료냉장고도 있는 에스키모 등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가을이면 누런 곡식이 무르익는 부엌발과 오리, 개사니, 돼지를 비롯한 수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축산장은 판리소의 이른한 물질적태를 자랑하고있다.

한겨울에도 온실에서 생산한 오이, 고추를 비롯한 푸르스름한 남새들과 꽃강병을 봉사하여 손님들을 기쁘게 하고 명절날이면 내

부족을 비롯한 음식들로 여행길에 오른 손님들과 열차승무원들의 식탁을 풍성케 하는 개천철도상업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하기에 열차판매원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의전처럼 이렇게 써넣었다.

《우리 인민이 세기를 이어 누리려는 사회주의생활, 고마운 우리 제도의 참모습이 열차상업봉사를 통하여 한껏 비껴나다는것을 이번 여행길을 통하여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를 꼭 지켜 지키기 위해 조국보위의 총대를 더욱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하나의 과자, 하나의 식료품에도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어려있고 생각하니 신뜻 수저를 들수 없었습니다.》

여행자들의 그런 목소리를 새길 때마다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여가는 영예로운 초소에서 일하는 공지와 보람이 일순을 더 굳게 붙어오며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의 생활을 적극 돌봐주고 인민사들의 열정과 열정을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판리소일군들과 종업원들,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이기에 이들의 사업과 생활속에서는 우리 열차판매원이라는 귀한 부름이 언제나 높이 울리고있는것이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후 다시 활기에 넘쳐 열차봉사를 계속하는 우리 열차판매원들을 보며 생각하였다.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를 자라게 할 때 그 인간은 얼마나 행복할까.

자기 직업에 대한 사랑, 그것은 곧 우리 제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거니와 그 사랑으로 충만된 심장은 언제나 삶의 보람과 행복으로 새치며, 뜨겁게 고동치리라.

본사기자 허명숙

발전소건설에 바치는 뜨거운 지성

독력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고 현장의로봉사활동도 적극 벌리는 그 나날에 사회주의 내 조국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사느것보다 더 큰 행복을 없고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감으로 절감한 최홍민동무는 조국의 만민세부를 염두세우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선로일용종업원 아예단위 로동자 양신리동무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 기여할 한마음을 안고 지원사업에 앞장서고있다.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뜨거운 마음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는 평민들속에는 국가건설성 애대단위 로동자

청년전위의 기개를 떨치고있는

독력대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이밖에도 평안북도 삭주군의 어느 한 기관에서 일하는 로동자 조영미, 선의주시상소도사업소 로동자 림광복, 피현하의 피복공장 초점정동맹비서 김순영, 구장봉화피복공장 로동자 오영복, 배천정선 로동자 박인철, 문천시에서 일한 단원에서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임명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순결한 마음과 뜨거운 정성을 다 바치고있다.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붙어 일장시면서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였으며 통일사업의 광명사업소 로동자 동민환, 선산인민위원회 부원 김해숙동무들도 발전소건설에서

재일본조선인측하단 여러곳 참관

박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2돐경축 재일본조선인측하단이 대동강수출항을 참관하였다.

참관단성원들은 우리 인민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선 대동강수출항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축하단성원인 최광림 총련 군마원부 위원장은 조국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널리 자랑할 만 한 농장을 보았다, 정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축하단은 김정일종합대학 전자동서관과 수영관, 대동강리 일공장을 참관하였으며 최광림 전자동서관을 돌아보았다.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통반쎡이언전보위성대표단으로 하는 라오스안전보위성대표단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기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만경대고향집의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 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일기분들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을것이다.

이날 대동강과수출항농장을 찾은 손님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펼쳐나신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

지난 13일에 개막되었던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폐막되었다.

폐막식이 15일 평양대외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리성숙 국가과학원 부원장, 전영진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원장, 김해룡 인민대학습당 부총장, 교육출판부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해외동포대표단, 대표들, 주

조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전람회에 출품하였던 도서들과 자료들을 시중난 단체들에 증서가 수여되고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폐막식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자들이 올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김정숙위원장께서 폐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전람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제7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폐막

협력해준 대표단, 대표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전람회폐막을 선언하였다.

전람회기간 대표단, 대표들은 과학기술, 출판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나라들 사이의 출판물교류협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협의하였다.

폐막식이 1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대표단들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1차 조중대학학장연대에 참가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황진도 총련 리호시 마천본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대에 참가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파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황진도 총련 리호시 마천본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제2차 조중대학학장연대에 참가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리파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연방제방식은 자주적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연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오늘 남조선보수당국의 악랄한 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과 난관에 부딪히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실현해 보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우리 민족이 65년이 되도록 세계의 유일한 분열민족으로 남아있는 것은 민족정신들의 의지도 아니며 올바른 조국통일방도가 없기때문임을 더우기이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방도인 연방제통일방안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손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연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연방제방식이다. 65년전후에 걸치는 외세에 의한 나라와 민족의 분열은 반민간의 력사가 깃든 한강도우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하였다. 한교를 나누는 형제들이 분열의 장기화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된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

현할수 없을뿐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제안을 찾아내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강압적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안되며 그것을 초월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방도는 연방제방식에 있다. 연방제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 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로 세우는 것이다.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연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게 하는 애국애족의 방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꼭 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혈연적유대를 강화하여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제도에서 갈라져살고있지만 그로 인한 차이는 반민간을 내려오며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보다 훨씬 적다. 우리 민족이 력

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것은 동족대결과 충돌을 격화시키자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면 민족내부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으며 대립과 의견충돌을 극복하면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나갈수 있다. 민족적단합성을 가지고있는 북과 남은 비록 사상과 제도는 서로 달라도 얼마든지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수 없는 《체제통일》을 꿈꿀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연방제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할수 없으며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이다.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 상대방을 먹는것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북과 남의 누구에게도 접수될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공동의 리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것은 민족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것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면 북과 남사이의 호상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적대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열을 끝낼수 있다. 연방제를 실시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결국 연방제는 조선민족이들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민족대결의 원천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것이며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막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연방제통일방도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체계로서 여기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한 손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모든 실현적책들이 다 밝혀져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방제안으로 공존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갈데 대해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최 철 순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김일성대원수님의 건국업적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단장이 높이 칭송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대표단 단장 문시용은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건하시교 경애하는 우리 공화국은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이 걸어온 장구한 나날들을 돌이켜보더라도 이 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바치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로고자 가슴뜨겁게 알겠다. 반민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기 못했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실상을 겪어왔던 것이다.

그러한 우리 인민이 오늘에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한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대원수님은 민족제생의 은인이시며 건국의 아버지이다.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공화국의 창건은 주체조선의 탄생은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행위였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모두는 나라의 통선번

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고있다. 김일성대원수님의 건국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나시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계신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피괴국방부가 그 모략적전선이 날날이 드러난 《천안》호사건을 또다시 꺼내 들고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9월 15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6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얼마전 피괴국방부는 《천안》호사건 최종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벌였다. 피괴국방부는 보고서라는 데서 그 누구의 《어찌에 의한 수종발표》이니 뭐니 하고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조사결과를 되풀이하면서 조사신빙성을 부여해 보려고 조사과정과 조사내용,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였을뿐 아니라 그동안 합선침몰사건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모두하는 만화를 만들어 내뿜는 루추한 짓까지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정보세력들과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는 합선침몰사건의 의혹이 해명된것이 아니라 더 커졌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합선침몰사건을 제정중재하라고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다. 피괴국방부가 그 모략적전선인 드러나 개교강선을 한 합선침몰사건을 또다시 꺼내 들고 최종보고서발간이니 뭐니 하며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것은 《천안》호의교함체를 만회하고 북남관계개선으로 금격히 높아가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대외정책과관으로 인한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단말미적발악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피괴국방부의 합선침몰사건 최종보고서발간공개놀음을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로, 북남관계개선문제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선전수단으로 판단하고 온 민족과 함께 준엄히 규탄한다. 현대판대형사기극인 합선침몰사건은 남조선안에서는 물론 주변나라들과 유엔 지어 합동조사에 참가하였던 나라들속에서까지 침몰원인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온통 의혹투성

성이어서 만사람의 웃음거리로 된지 오래다. 피괴국방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억지와 추측으로 꾸며진 엉터리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가 통하지 않게 되자 저들이 내놓은 《증거》자료라는것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번엔 다시 짜맞추기를 하였으니 결국 흑을 때려다가 붙이는 꼴이 되고말았다. 남조선인들은 피괴국들의 가소로운 모략수단을 종로에서 뺄라고 한강에서 분출이하는 것이라고 조소하고있다. 피괴국방이 진실이 아닌 모략을 《진실》로 꾸며내려고 백번 다시 짜맞추기를 해보아야 얻을것은 더 큰 망신뿐이다. 피괴국방은 최종보고서발간공개놀음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체면을 수습하고 민심에 역행하여 대결로 계속 나가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들의 모략적정체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피괴국방은 더 큰 창피와 망신을 당하기 전에 부질없는 모략수단을 건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미제호전광의 망발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며칠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군사적대결을 격화시키는 호전광의 망발을 단죄하였다. 그는 남조선미국 《연방군사령부》 사령관이라자 미국과 남조선사실적대결의 《출시 프리덤 거더인》 합동군사연습이 무슨 《북 안전화를 위한 연대》이라는 망발을 늘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을 고조시키고 북과 계속 대결하려는 속심을 드러낸것이라고 그는 까뻐냈다. 더욱 심각한것은 이자가 조선반도의 현실을 이라크와

통일민주주의의 선봉을 위한 투쟁

최근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체포구속한 괴소문과 남조선당국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은 남조선당국이 6. 15공동선언발표 10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선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 북남관계를 전쟁적전선으로까지 끌고가는 데 분격하여 종교적신앙에 따라 단행된것이라고 단정들은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특수집임, 탈출》 혐의를 들이치는것은 납득할수 없는 처사라고 단정들은 비난하였다. 단정들은 특히 당국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목사의 발언을 문제시하면서 《정치적위》로 몰아대는것은 군사독재시책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한상렬목사를 단장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가령 령심수후원회 명에 회향 권유는 얼마전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구속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에 내린것은 현 당국이 북남선인들의 리해를 가로막고 반통일책동과 전쟁소동에 미칠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히었다. 이 조 본 대 와 《6. 15와 평화》, 《한상렬목사와 평화》, 《6. 15선언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북방 기공대행취위원회》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상렬목사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폭압책동에 항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정들은 당국이 한상렬목사를 《보안법》에 걸려 탄압을 가하고있는 데 대해 언급하였다.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은 남조선당국이 6. 15공동선언발표 10돐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합선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 북남관계를 전쟁적전선으로까지 끌고가는 데 분격하여 종교적신앙에 따라 단행된것이라고 단정들은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특수집임, 탈출》 혐의를 들이치는것은 납득할수 없는 처사라고 단정들은 비난하였다. 단정들은 특히 당국이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목사의 발언을 문제시하면서 《정치적위》로 몰아대는것은 군사독재시책으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다고 하면서 한상렬목사를 단장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가령 령심수후원회 명에 회향 권유는 얼마전 통일인사 한상렬목사를 구속한 보수당국의 탄압책동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같은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에 내린것은 현 당국이 북남선인들의 리해를 가로막고 반통일책동과 전쟁소동에 미칠새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여 발표하였다고 밝히었다. 이 조 본 대 와 《6. 15와 평화》, 《한상렬목사와 평화》, 《6. 15선언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북방 기공대행취위원회》는 얼마전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상렬목사에 대한

부당탄압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북남선인들의 리해와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중지, 한상렬목사를 비롯한 통일인사들에 대한 석방을 내걸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6. 15선언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북방 기공대행취위원회》는 얼마전 서울에서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민족이 함께 모여살 그날을 앞당겨주기 위한 통일의 길에 나선것이아말로 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숨걸고 북을 방문한 목사를 구속한것은 종교인의 향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아무리 그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해도 통일을 위한 민중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다고 하면서 목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하여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상렬목사의 종교적향심을 《보안법》 위반혐의로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상렬목사의 활동은 과한 단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 15공동선언을 위반하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것이었다고 하면서 평행은 그의 이러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 무덤에도 악담을 휘두르며 탄압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논평은 당국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과한시대에 대해 민족앞에 사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현 철

제 7차 평양국제과학도서전람회에 참가한 대표단, 대표들 만경대 방문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제 7차 평양국제과학도서전람회에 참가한 여러나라와 국제기구에대표, 대표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의 집에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끈들을 기우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서 살펴보았다. 그들은 만경대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중국출판인근대대표단 단장 리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이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어 위대한 진정적 인종조선의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교 단 에 바 치 는 사 랑

남포시 향구구역 갈천중학교 교원 김승혜동무의 생활에서

그날도 김승혜동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정회걸이 가 앉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정회의 얼굴을 따뜻한 눈길로 들여다보았다. 《이제 좀 기운이 나니?》 그러나 정회는 울먹임대 대답을 못하였다. 대신 담임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김승혜동무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달인 이 약을 다 먹어야 해. 그리고 저 닭곰도.》 몸이 약해 이따금 앓는 정회를 자기 집에 데려온지도 여러날, 정회의 부모들은 극력 만류하였지만 김승혜동무는 꼭 자기 곁에 두고 몸을 추스려주실여 학급학생을 어떻게 제 집에 데려왔다. 하지만 어찌지 자기의 성의가 모자라듯 같이 김승혜동무는 그날 저녁에도 바구니를 끼고 종중걸음을 놓았다. 산기슭에 이르자 낮에 보아두었던 산나물들을 캐기 시작하였다. 인기척이 나 돌아보니 남편이 곁에 와앉았다. 함께 산나물을 캐는 그를 보며 김승혜동무는 미소를 지었다. 늘 이렇게 도와주는 남편이었다. 그런 김승혜동무도 학생들의 괴이학습지도도 밤늦도록 마음놓고 할수 있고 제 자식은 좀 못 먹이고 못 입히는 것이 아니라도 학생들에게는 새 배를, 새 신발도 사줄수 있었다. 정회를 이 집에서 데려가려고 떠난 사람도 남편이었다. 《고마와요.》 김승혜동무는 남편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다 합쳐 이렇게 말했다. 《고맙긴. 교원들은 아마 이런 재미에 사는것 같구나.》 김승혜동무는 뜨락에서 빨래를 하다가 취재하는 우리의 말에 펄쩍 뛰었다. 《학부형들이 그런 편지를 하였던 말입니까? 아니 누가 그런 편지를. 이거 정말 야단났군요. 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빨래소꿉이에는 흉터에 얼룩진 끈적끈적교복바지가 담겨져있

교 단 에 바 치 는 사 랑

남포시 향구구역 갈천중학교 교원 김승혜동무의 생활에서

다. 인정을 무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무슨 일에서나 세심한 안배이다. 학급학생들의 성격과 취미는 물론 식성까지도 알고있다. 집에서 편식을 하면 이런 누가 좋아하는건데 자기 싸자고 학교에 나간다. 자기의 생일날이면 남편이 정성껏 차려준 음식도 학급학생들을 데려다 모두 먹인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고맙게 기뻐한다. 《한바구니 잘 갖추어. 이젠 들어가지요.》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있었다. 그러나 김승혜동무는 학생들을 위해 걷는 이런 기운이 어느때도 없었다. ... 이 이야기는 갈천중학교 학부형들이 우리에게 편지로 전해온 김승혜동무에 대한 미담의 한 토막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알고싶은것이 있었다. 우리는 갈천중학교를 찾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은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혁명가들이다.》 우리는 김승혜동무를 쉽사리 만나지 못하였다. 학교에 가보니 두시간전에 학교를 데리고 식물체제를 나갔다고 하였고 산에 가보니 산림감독원은 조경에 학생들이 식물체제를 마치고 선생님을 따라 마을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저녁무렵 마을에 내려와서야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집은 농장관리위원회로 통하는 큰길가에 자리잡고있었다. 김승혜동무는 뜨락에서 빨래를 하다가 취재하는 우리의 말에 펄쩍 뛰었다. 《학부형들이 그런 편지를 하였던 말입니까? 아니 누가 그런 편지를. 이거 정말 야단났군요. 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빨래소꿉이에는 흉터에 얼룩진 끈적끈적교복바지가 담겨져있

교 단 에 바 치 는 사 랑

남포시 향구구역 갈천중학교 교원 김승혜동무의 생활에서

김승혜동무는 그 영화를 무척 좋아하고있었다.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이 교문을 나선 후에도 진실로 도와주며 당과 수령에게 팔없이 충실하도록 이끌어주는 영웅의 주인공처럼 그도 살고있었다. 처녀시절 고향인 평을 그는 도시에서 살다가 종손으로 자란 친정촌 출신을 따라 갈천명당에 온 후 실현하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 교원이 부족했다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교단에 섰다. 후대교육,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영웅의 주인공의 모습에, 대학시절 스승들의 모습에 그는 늘 자기를 뒤쫓고 일하였다. 그는 비록 교원으로서의 오랜 경력과 경험은 없었지만 자질향상에 따라는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 나뉘어할수 있는 새 교수방법도 내놓게 되었다. 그의 생활에 판토되어있는것은 그의 인품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함께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원신이었다. 그는 학생들의 장애에 부모들보다 더 마음을 쓰며 모든 학생들이 나라의 미더운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애썼다. 그의 집은 자주 학생들의 괴이학습이 되었다. 김승혜동무의 집에서 때로 기차소리, 손꼽음소리가 울려나왔다. 그처럼 그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자기도 배웠고 체육감독도 익히었다.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그가 학급학생들과 축구, 배구, 농구도 같이하면서 남아진 공간도 사르얍이 넘는다라고 한다. 어느날 학교에 방금 대학을 졸업한 처녀교원이 새로 배치되었다. 그때 김승혜동무는 제자를 꼭 그러안으며 속삭이

교 단 에 바 치 는 사 랑

남포시 향구구역 갈천중학교 교원 김승혜동무의 생활에서

《오늘은 내 명절이야.》 속삭이, 마침내 교원이 되었구나. ... 우리는 취재수첩을 덮었다. 김승혜동무가 왜 교단에 섰으며 교단을 그리도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다. 본사기자 박 철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 신크트 펠렌시위원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민주당 편방지도부 성원이며 신크트 펠렌시위원회 위원장인 안톤 하인클을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 신크트 펠렌시위원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집에 있듯이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중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

었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대동강파수종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합동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단원들 커린 카멘바호는 대과 일생살기지가 훌륭한 일면서대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다 고 하면서 이곳 로자들이 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주체사상과 고려의 학

파학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하였으며 대집단체조와 합동장을 참관하였다.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

오스트리아사회민주당 신크트 펠렌시위원회대표단 대동강 파수종합습장 참관

대동강 파수종합습장 참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신문들이 특집하였다.

《라보체-크레스체야냐카야 브라우다》 제9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동지께서 환호하는 군중에게 담배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웅근 한변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구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살림집건설이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경제강국건설목표를 따라 조선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건설이 건설되고 공방, 기업소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고있으며 주철, 주철설유, 주철비료가 폭포처럼 쏟아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선군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조선은 자체의 힘으로 인공지구위성들을 띄웠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김일성동지를 떠나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나호드진스키 라보치》 7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

피델 카스트로동지 미국의 대이란공격기도에 대해 경고

쿠바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동지가 3일 아나중합대학 학생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공격기도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

미국교회외의 무분별한 계획 규탄

아시아인들이 9일 이슬람교의 코란경을 불태우려는 미국 플로리다주 교회의 무분별한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인도네시아대통령 고문은 만일 미국교회의 이러한 계획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

여러 나라들 협조

메히코와 엘살바도르가 10일 안전분야에서 호상협력조항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웨남은 두

이스라엘군의 살인 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문명퇴치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커다란 관심속을 돌리고있다.

캄보디아수상 혼 센은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문명을 퇴치하는 것은 정부의 빈곤산정전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인디아수상 만모한 싱은 청년단체선원들과의 담화석상에서 청년들이 문명퇴치운동에 앞장설것을 호소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전망적인 문명퇴치계획과 목표를 내놓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네팔에서 2월에 전국적인 문명퇴치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번 캠페인이 기간에 120만명의 주민들을 문명에서 벗어나게 할것을 목표로 내걸고 각지에 문명퇴치학급들을 조직하여 매일 2시간씩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마르코에서는 2012년까지 문명퇴치를 20%이하로 감소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요르단에서는 문명퇴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2015년까지 문명퇴치를 5%까지 낮출것을 계획하고있다.

앙골라에서는 모든 학생어린이들을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다.

창건후 공화국은 세계적인 랍후와 빈곤을 털어버리고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었다.

조선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지난 세기말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좌절될때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조선은 보면서 세계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자주성이 강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군사강국이다.

조선에는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 근대 인민의 혼연일체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멸의 사회주의보루로 전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은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고 경제선진국은 우리 인민이 경제건설에서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사술하고 이것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전제 인민이 자기의 팔과 노력으로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오늘의 조선의 현실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중공고신문 《라 브로스베리예》 6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향하여》라는 표제 밑에 웅근 한변 특집하였다.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디아내무상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미국교회의 계획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대중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를 반대하는 선전캠페인야를 벌릴것이라고 연명하였다.

본사기자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조선인민은 세계적인 랍후와 빈곤을 털어버리고 조국방위에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전제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는 사회에 사상적일색화가 실현되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제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조선은 보면서 세계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자주성이 강한가를 다시금 느끼었으며 위대한 선군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과시하면서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선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이라는것을 실감하였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1일부는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사회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필리핀대통령 베니그노 씨메는 코류양코 아키노가 8일 한 연단에서 나라의 사회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가이와 빈곤,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의

미국인 제재책을 동을 배격

튀르키예수상 에르도간이 10일 한 방콕과의 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유엔안보리회의를 사속하여 새로운 대이란제재의를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단평 미국식 지도력 라령

미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지위를 이미 잃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의교양강자는 제 흥에 겨워 미국을 《세계지도자》로 떠밀려고 힘써왔다. 그는 미국의교양외에서 한 연설에서 제법 목적을 둔구어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미국 《지도력》의 《특징》이라고 회피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미국식위세체 《지도력》 태령이다. 그가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세상만사가 다 잘될수 있는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떠든것은 세상이웃은 가스로운 자화자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성들을 통칭하여 동북3성이라고 한다.

동북3성 가운데서 료녕성과 길림성은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자취가 렁력히 어그러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렁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5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신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전제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는 사회에 사상적일색화가 실현되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에 따라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제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자주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는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는 조선은 보면서 세계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자주성이 강한가를 다시금 느끼었으며 위대한 선군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과시하면서 세계자주화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조선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이라는것을 실감하였다.

미국인 제재책을 동을 배격

튀르키예수상 에르도간이 10일 한 방콕과의 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유엔안보리회의를 사속하여 새로운 대이란제재의를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단평 미국식 지도력 라령

미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지위를 이미 잃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의교양강자는 제 흥에 겨워 미국을 《세계지도자》로 떠밀려고 힘써왔다. 그는 미국의교양외에서 한 연설에서 제법 목적을 둔구어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미국 《지도력》의 《특징》이라고 회피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미국식위세체 《지도력》 태령이다. 그가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세상만사가 다 잘될수 있는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떠든것은 세상이웃은 가스로운 자화자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성들을 통칭하여 동북3성이라고 한다.

동북3성 가운데서 료녕성과 길림성은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자취가 렁력히 어그러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렁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5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신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단평 미국식 지도력 라령

미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지위를 이미 잃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의교양강자는 제 흥에 겨워 미국을 《세계지도자》로 떠밀려고 힘써왔다. 그는 미국의교양외에서 한 연설에서 제법 목적을 둔구어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미국 《지도력》의 《특징》이라고 회피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미국식위세체 《지도력》 태령이다. 그가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세상만사가 다 잘될수 있는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떠든것은 세상이웃은 가스로운 자화자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성들을 통칭하여 동북3성이라고 한다.

동북3성 가운데서 료녕성과 길림성은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자취가 렁력히 어그러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렁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5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신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단평 미국식 지도력 라령

미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지위를 이미 잃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의교양강자는 제 흥에 겨워 미국을 《세계지도자》로 떠밀려고 힘써왔다. 그는 미국의교양외에서 한 연설에서 제법 목적을 둔구어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미국 《지도력》의 《특징》이라고 회피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미국식위세체 《지도력》 태령이다. 그가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세상만사가 다 잘될수 있는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떠든것은 세상이웃은 가스로운 자화자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성들을 통칭하여 동북3성이라고 한다.

동북3성 가운데서 료녕성과 길림성은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자취가 렁력히 어그러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렁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5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신

신문은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에서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동지께서 종합체계화하신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단평 미국식 지도력 라령

미국이 세계 《유일초대국》지위를 이미 잃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미국에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고있다.

그런데 미국의교양강자는 제 흥에 겨워 미국을 《세계지도자》로 떠밀려고 힘써왔다. 그는 미국의교양외에서 한 연설에서 제법 목적을 둔구어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이끌어야 하고 능히 그렇게 할것이라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도》를 미국 《지도력》의 《특징》이라고 회피운 소리를 쳤다. 그야말로 미국식위세체 《지도력》 태령이다. 그가 마치도 미국이 세계를 《지도》해야 세상만사가 다 잘될수 있는것이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떠든것은 세상이웃은 가스로운 자화자찬이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성들을 통칭하여 동북3성이라고 한다.

동북3성 가운데서 료녕성과 길림성은 우리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자취가 렁력히 어그러있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렁사가 깃들여있다.

지난 5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친선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신